

# 프랑스 사내변호사 법률자문 비밀보호권(ACP) 도입에 관한 심층 분석 보고서

## 서론

### 보고서의 목적과 의의

본 보고서는 프랑스 법률 및 비즈니스 환경에 중대한 전환점을 마련한 '사내변호사 법률자문 비밀보호권 (Attorney-Client Privilege, 이하 ACP)' 도입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수십 년간 이어진 격렬한 논쟁의 산물인 이 개혁은, 프랑스의 국제 경제 경쟁력 강화, 법률 주권 확보, 그리고 기업 내 준법경영 (compliance) 문화 정착이라는 거시적 목표와 직결된다. 과거 프랑스 기업들은 내부 법률 자문에 대한 보호 장치가 전무하여 국제 소송 및 규제 당국 조사에서 심각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으나, 이번 개혁으로 마침내 국제 표준에 한 걸음 다가서게 되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으며, 최종적으로 도입된 제도는 여러 한계를 내포하고 있어 그 실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 분석의 범위와 구조

본 보고서는 기업의 법무 및 전략 담당자들이 새로운 법적 환경을 정확히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분석을 제공한다. 분석은 크게 네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첫째, **제1부**에서는 개혁의 역사적 배경과 수십 년간 이어진 입법 시도, 그리고 이를 둘러싼 핵심 이해관계자들의 치열한 동학을 추적한다. 둘째, **제2부**에서는 최종적으로 채택된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 즉 1971년 변호사법에 신설된 제58-1조의 핵심 조항들을 해부하여 비밀보호권의 적용 범위, 조건, 그리고 명백한 한계를 분석한다. 셋째, **제3부**에서는 개혁 이전과 이후의 상황을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비교하여, 제도의 도입이 기업의 법률 리스크 관리, 사내변호사의 역할, 법률 비용 등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을 가시적으로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4부**에서는 SWOT 분석을 통해 제도의 명과 암을 조망하고, 영국, 미국, 독일의 유사 제도와 비교 분석함으로써 프랑스의 현 위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이를 통해 본 보고서는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이 새로운 제도 하에서 직면할 기회와 위협을 명확히 인지하고, 실용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 제1부: 법제화 과정과 이해관계자 동학

### 1.1. 개혁의 서막: '프랑스적 예외'와 경쟁력 약화

개혁 이전, 프랑스는 주요 선진국 중 사내변호사의 법률 자문에 대한 비밀보호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의 유일한 국가로서 '프랑스적 예외(French exception)'로 불렸다. 이러한 법적 공백은 프랑스 기업들에게 심각한 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국경을 넘나드는 비즈니스가 일상화된 현대 환경에서, 프랑스 기업들은 국제 소송, 규제 당국 조사(특히 경쟁법), 그리고 국경 간 M&A 협상 등에서 구조적인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다. 미국이나 영국 등 경쟁국의 기업들은 ACP 또는 법률전문가 특권(Legal Professional Privilege, LPP)에 따라 내부적으로 논의된 민감한 법률 리스크 분석 자료나 전략을 보호받을 수 있었던 반면, 프랑스 기업의 동일한 문서는 아무런 보호 없이 규제 당국에 의해 압수되어 기업에 불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었다.<sup>1</sup>

이러한 문제의식은 오래전부터 존재했으며, 과거에도 여러 차례 개혁 시도가 있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이정표는 2009년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의 위촉으로 발표된 \*\*다루아 보고서(Rapport Darrois)\*\*이다.<sup>3</sup> 이 보고서는 프랑스 법률 직업의 현대화를 목표로, '기업 내 변호사(avocat en entreprise)'라는 새로운 신분을 창설하여 이들에게 변호사의 직업상 비밀유지 의무를 확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sup>5</sup> 이는 사내변호사에게 변호사와 동등한 지위와 보호를 부여하자는 급진적인 제안이었으나, 변호사 직업의 고유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변호사

단체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결국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sup>6</sup> 이처럼 과거의 시도들은 변호사 직역의 정체성과 사내변호사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 차이를 넘지 못하고 번번이 좌절되었다.

## 1.2. 격렬한 대립: 핵심 이해관계자 입장 분석

사내변호사 비밀보호권 도입을 둘러싼 논쟁은 프랑스 사회의 두 가지 상이한 가치관, 즉 경제적 실용주의와 전통적인 법률 조합주의(corporatism)의 충돌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 찬성 측 (Promoters) - 경제적 실용주의

개혁을 주도한 핵심 세력은 **프랑스사내변호사협회(AFJE)**, 기업 법무 총괄 책임자들의 모임인 **몽테스키외의 서클(Cercle Montesquieu)**, 그리고 프랑스 최대 경제 단체인 **\*\*프랑스경영자총협회(MEDEF)\*\***였다.<sup>8</sup> 이들은 '경제 주권(souveraineté économique)'과 '국제 경쟁력(compétitivité internationale)'을 핵심 논리로 내세웠다.<sup>9</sup> 이들의 주장은 명료했다. 미국 법무부(DOJ)의 역외관할권 행사나 유럽연합 경쟁 당국의 급습 조사(dawn raid) 시, Anglo-American 기업들은 ACP를 통해 자사의 민감한 내부 법률 문서를 보호하는 동안 프랑스 기업들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막대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이었다.<sup>1</sup>

나아가 이들은 비밀보호권이 단순히 기업을 보호하는 수단을 넘어, 기업 내 '준법 문화(culture de conformité)'를 정착시키는 필수적인 도구라고 역설했다. 비밀보호가 보장되는 '신뢰의 공간(zone de confiance)'이 있어야만 사내변호사가 경영진 및 현업 부서와 잠재적인 법률 위반 가능성에 대해 솔직하게 소통하고,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설계 및 운영할 수 있다는 논리였다.<sup>12</sup> 즉, 이들에게 비밀보호권은 기업의 방어권인 동시에, 보다 적극적인 예방적 법무를 위한 전제 조건이었다.

### 반대/회의론 측 (Opponents/Skeptics) - 직역 수호와 공익

반면, **\*\*전국변호사협의회(CNB)\*\***와 **파리 변호사회** 등 주요 변호사 단체들은 이 개혁에 대해 강력한 반대 또는 회의적인 입장을 견지했다.<sup>13</sup> 이들의 반대 논리는 크게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이 개혁이 변호사에게만 부여된 고유하고 절대적인 **\*\*직업상 비밀유지 의무(secret professionnel)\*\***의 가치를 훼손한다는 점이다.<sup>13</sup>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는 단순한 특권이 아니라 의뢰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공공질서의 핵심 요소인데, 이를 기업에 고용된 사내변호사에게까지 확장하는 것은 그 본질을 흐린다는 것이다. 이들은 개혁안이 사실상 변호사와 구별되는 '새로운 법률 규제 직업'을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비판했다.<sup>14</sup>

둘째, 사내변호사의 '독립성(indépendance)' 부재 문제를 제기했다. 고용주인 기업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사내변호사가 과연 외부 변호사와 같은 수준의 독립성을 유지하며 공익에 반하는 기업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겠느냐는 근본적인 의문이었다. 이들은 비밀보호권이 기업의 불법 행위나 비윤리적 결정을 은폐하는 **\*\*담합의 특권(privilège de complaisance)\*\***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sup>15</sup> 이러한 주장은 변호사 직역의 고유한 권한과 위상을 지키려는 의도와 함께, 특권 남용이 초래할 공익 침해에 대한 우려를 담고 있었다.

## 1.3. 우여곡절의 입법 과정 (2023-2024)

이러한 첨예한 대립 속에서 개혁안의 입법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 첫 번째 시도와 좌절

2023년, 개혁 지지 세력은 법무부의 예산 및 조직에 관한 포괄적인 법률인 **\*\*Loi n° 2023-1059 d'orientation et de programmation du ministère de la justice 2023-2027\*\***에 사내변호사 비밀보호권 조항을 수정안 형태로 포함시켜 의회를 통과시키는 데 성공했다.<sup>16</sup> 이는 정면 돌파보다는 다른 법안에 편승하여 입법을 시도한 전략적 선택이었다. 그러나 2023년 11월 16일,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이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 헌법위원회는 해당 조항의 내용 자체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해당 조항이 법안의 주된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입**

법 기수(cavalier législatif)\*\*에 해당한다는 절차적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sup>8</sup> 이 결정으로 인해 수십 년간의 노력이 담긴 개혁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듯 보였다.<sup>20</sup>

## 신속한 재추진과 최종 타결

그러나 이 절차적 좌절은 오히려 개혁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헌법위원회의 결정이 내용이 아닌 형식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입법부는 곧바로 재추진에 나섰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좌절 이후 개혁안이 포괄적인 종합 법안이 아닌, 오직 이 주제만을 다루는 별도의 독립 법안으로 추진되었다는 것이다. 상원에서는 루이 포겔(Louis Vogel) 의원이, 하원에서는 장 테를리에(Jean Terlier) 의원이 각각 주도하여 별도의 법안을 발의했다.<sup>14</sup>

이 두 법안은 사내변호사 자문에 대한 비밀보호권을 신설한다는 핵심 목표를 공유하면서도 세부적인 조건과 절차에서 미세한 차이를 보였다. 이후 양원은 여러 차례의 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토론을 거치며 반대파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타협점을 모색했다.<sup>2</sup> 이 과정에서 형사 및 조세 분야를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중요한 수정이 이루어졌다. 결과적으로, 독립된 법안으로서 공개적인 토론과 합의 과정을 거친 개혁안은 이전보다 더 강력한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었고, 마침내 최종적으로 입법에 성공했다. 이는 사내변호사의 역할이 프랑스 경제에서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음을 입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결과라 할 수 있다.

## 제2부: 법적 프레임워크 및 핵심 조항 해부

프랑스의 사내변호사 비밀보호권은 기존 법체계에 새로운 조항을 삽입하는 점진적인 방식으로 도입되었다. 이는 제도의 안정성을 꾀하는 동시에, 변호사 단체의 반발을 최소화하려는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다. 제도의 실효성은 이 법적 프레임워크의 구체적인 요건과 한계를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준수하는지에 달려 있다.

### 2.1. 법적 근거: 1971년 법률 제58-1조 신설

이번 개혁의 법적 핵심은 프랑스 변호사 직업에 관한 기본법인 **1971년 12월 31일 법률 제71-1130호에 제58-1조**를 신설한 것이다.<sup>22</sup> 기존의 제58조가 사내변호사의 존재와 활동을 규정하는 조항이었다면, 신설된 제58-1조는 이들의 특정 업무 결과물, 즉 법률 자문에 대한 비밀보호의 근거와 요건을 명시한다. 이는 과거에 논의되었던 '기업 내 변호사(avocat en entreprise)'라는 새로운 법적 신분을 창설하는 급진적인 방안 대신, 기존 변호사법 체계 내에서 사내변호사를 위한 별도의 보호 규정을 마련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sup>29</sup> 이러한 접근 방식은 제도의 정착을 유도하지만, 동시에 변호사의 '직업상 비밀유지 의무'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제한적인 보호라는 점을 명확히 한다.

### 2.2. 비밀보호권의 범위와 조건

새로운 제도는 보호를 받기 위해 주체적, 형식적, 내용적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요건들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비밀보호권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업의 실무 운영에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는 제도가 '방패'로서 기능하도록 설계되었음을 보여주며,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안전장치를 포함하고 있다.

#### 보호 대상: "법률 자문(Consultations Juridiques)"

보호의 대상은 사내변호사라는 '사람'이 아니라, 그가 작성한 '법률 자문 문서' 그 자체이다. 이는 인적 특권(in personam)이 아닌 물적 보호(in rem protection)임을 의미한다.<sup>31</sup> 법률에서 "법률 자문"은 \*\*\*제기된 질문에 대해, 법규의 적용에 근거하여 의견이나 조언을 제공하는 개인화된 지적 서비스\*\*\*로 정의된다.<sup>23</sup> 이 정의에 따라, 단순한 사실관계의 요약이나 사업적 조언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법률 자문을 작성하기 위해 생성된 준비 문서, 예를 들어 자문서의 여러 초안(draft) 등도 보호 범위에 포함될 수 있어, 자문 과정 전반에 걸친 보호를 의도하고 있다.<sup>23</sup>

## 주체적 요건 (Jurist Requirements)

비밀보호가 적용되는 자문을 작성할 수 있는 사내변호사는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학력 요건:** 자문을 작성하는 사내변호사 또는 그의 지휘하에 있는 팀원은 반드시 **법학 석사(Master en droit)** 또는 **프랑스나 외국의 동등 학위** 소지자여야 한다.<sup>23</sup> 이는 법률적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작용한다.
2. **윤리 교육 요건:** 사내변호사는 반드시 **윤리(déontologie)**에 관한 초기 및 보수 교육을 이수했음을 증명해야 한다.<sup>21</sup> 이 요건은 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사내변호사가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인지하도록 하기 위한 핵심 장치이다.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는 향후 발표될 시행령(décret)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또한, 법 시행 당시 이미 일정 경력을 갖춘 사내변호사들을 위한 경과 규정도 논의 과정에서 포함되었다.<sup>25</sup>

## 형식적 요건 (Formal Requirements)

문서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명확한 형식적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이는 보호 대상 문서를 다른 일반 문서와 명확히 구별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함이다.

1. **명시적 표기:** 문서에는 반드시 **\*\*\*Confidentiel – Consultation juriste d'entreprise\*\*\***라는 문구가 명확하게 표기되어야 한다.<sup>22</sup> 이 표기가 누락된 문서는 보호를 주장할 수 없다.
2. **수신인 제한 및 관리:** 해당 자문은 사내변호사가 소속된 기업의 법적 대표, 그의 위임을 받은 자, 이사회, 감사회 등 법률에서 정한 특정 수신인에게만 배타적으로 전달되어야 한다.<sup>25</sup> 또한, 이 문서는 기업 내부에서 별도의 식별 체계와 추적 시스템을 통해 특별 관리되어야 한다.
3. **악용 방지:** 이러한 형식적 요건을 악용하여, 비밀보호 대상이 아닌 문서에 고의로 해당 문구를 표기하는 행위는 **형사 처벌(예: 사문서 위조죄)** 대상이 될 수 있다.<sup>22</sup> 이는 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한 강력한 억제 장치이다.

## 2.3. 핵심적 예외와 한계

새로운 비밀보호권은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며, 그 실효성을 크게 제약하는 명백한 예외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는 입법 과정에서 반대파와의 타협의 결과물이며, 기업이 전략을 수립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아킬레스 건'이다.

### 적용 배제: 형사 및 조세 절차

이 제도의 가장 큰 한계는 비밀보호권이 **\*\*형사 절차와 조세 절차에서는 대항할 수 없다(inopposable)\*\***는 점이다.<sup>22</sup> 이는 검찰, 경찰, 판사 등 형사 사법 기관이나 국세청과 같은 조세 당국이 수사나 조사를 진행할 때, 요건을 갖춘 법률 자문 문서라 할지라도 압수 및 증거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업은 이를 거부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부패, 횡령, 담합 등 많은 기업 범죄가 행정 제재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동시에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예외 조항은 당국에 비밀보호권을 우회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을 제공한다. 따라서 기업은 행정 조사를 대비해 작성한 내부 법률 자문이 언제든지 형사 사건으로 전환될 경우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리스크를 안게 된다.

### 경쟁 당국에 대한 효력

이번 개혁의 주된 목표 중 하나는 프랑스 및 EU 경쟁 당국의 조사로부터 기업의 방어권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원칙적으로 새로운 비밀보호권은 경쟁법 위반 조사와 같은 **행정 절차에서는 유효하게 주장할 수 있다**.<sup>24</sup> 그러나 EU 경쟁 당국에 대한 대항력 문제는 여전히 복잡하다. 유럽사법재판소(ECJ)는

Akzo Nobel 판결 등에서 사내변호사의 독립성 부족을 이유로 EU 경쟁법 조사에서는 이들의 법률 자문에 대한 비밀보호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sup>34</sup> 프랑스 국내법이 이러한 EU법 원칙을 뒤집을 수는 없으므로, EU 집행위원회가 직접 수행하는 조사에서는 프랑스 기업이라도 이 새로운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다만, 프랑스 경쟁 당국이 수행하는 조사에서는 이 법이 적용될 수 있다.

'Confidentialité' vs. 'Secret Professionnel': 본질적 차이

마지막으로, 사내변호사에게 부여된 '비밀보호권(confidentialité)'과 외부 변호사의 '직업상 비밀유지 의무(secret professionnel)'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 **사내변호사의 Confidentialité:** 법률이 정한 엄격한 요건(학력, 교육, 문서 표기 등)을 모두 충족하는 특정 '문서'에만 부여되는 **제한적이고 조건부적인 보호**이다. 이 권리는 기업에 귀속되며, 기업의 결정에 따라 포기될 수 있다.
- **외부 변호사의 Secret Professionnel:** 변호사라는 '신분' 자체에서 비롯되는 **일반적이고 절대적인 원칙**이다.<sup>15</sup> 이는 의뢰인과의 모든 소통을 포괄하며, 공공질서에 해당하여 변호사나 의뢰인이 임의로 포기할 수 없다. 그 보호의 범위와 강도는 사내변호사의 비밀보호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다.<sup>36</sup> 이 차이는 기업이 법률 리스크의 성격에 따라 내부 자문과 외부 자문을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이유를 명확히 보여준다.

제3부: 개혁의 영향 분석: Before vs. After

이번 개혁은 프랑스 기업의 법무 기능 수행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의 '법적 진공' 상태와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 이후의 상황을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비교하면, 그 실질적인 영향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아래의 표와 설명은 개혁이 기업의 리스크 관리, 사내변호사의 역할, 비용 구조, 그리고 국제 경쟁력에 미치는 구체적인 변화를 분석한다.

Table 1: Impact of the Reform on the Corporate Legal Function

분석 기준 (Criterion)	개혁 이전 상황 (Situation Before the Law)	개혁 이후 상황 (Situation After the Law)
법률 자문 보호 (Protection of Consultations)	<b>전무(Nulle).</b> 모든 내부 법률 자문, 메모, 이메일은 경쟁 당국, 반부패청(AFA) 등 모든 규제 기관의 압수수색 대상이었음.	<b>제한적 보호.</b> 형사/조세 분야를 제외하고, "Confidentiel" 표기 등 요건을 갖춘 법률 자문은 행정 조사(경쟁법 등)에서의 압수로부터 보호됨. <sup>22</sup>
법률 리스크 관리 (Legal Risk Management)	<b>우회 전략에 의존.</b> 민감한 사안은 변호사의 '직업상 비밀유지 의무'를 활용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외부 로펌에 의뢰. 구두 소통을 선호하고 문서화를 최소화.	<b>리스크 분석의 내재화 증가.</b> 민감한 법률 리스크 분석을 내부에서 보다 자유롭게 수행하고 문서화 가능. 법무팀과 현업 부서 간의 솔직한 소통 촉진. <sup>1</sup>
사내변호사의 역할 (Role of In-House Counsel)	<b>사후적 '유효성 검토자(contrôleur de validité)'. </b> 전략 수립 초기 단계에서의 역할이 제한적이며, 주로 이미 결정된 사안의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는 역할.	<b>사전적 '전략적 파트너(partenaire stratégique)'. </b> 리스크가 큰 전략 수립 초기 단계부터 깊숙이 관여. 예방적 법무 및 컴플라이언스 설계의 핵심 주체로 부상. <sup>11</sup>
법률 비용 (Legal Costs)	소송 사안이 아닌 민감한 자문을 위해서도 <b>높은 외부 자문 비용</b> 발생 가능성.	<b>외부 자문 비용의 잠재적 절감.</b> 핵심적인 전략 자문을 내부에서 소화. 절감된 비용을 윤리 교육 및 내부 시스템 구축에 재투자.

분석 기준 (Criterion)	개혁 이전 상황 (Situation Before the Law)	개혁 이후 상황 (Situation After the Law)
국제 경쟁력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영국(LPP), 미국(ACP), 독일 등 대부분의 경쟁국에 비해 <b>명백한 불리함</b> . 국제 조사에서 프랑스 기업만 내부 자료를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 <sup>1</sup>	<b>국제 표준과의 부분적 정렬</b> . 완전하지는 않지만, 주요 경쟁국과의 격차를 줄여 프랑스를 유럽 본사 소재지로서의 매력도를 일부 향상. <sup>11</sup>
내부 조사 보안 (Security of Internal Investigations)	사내변호사가 주도한 내부 조사 보고서 (예: 부패, 괴롭힘)가 압수되어 <b>기업에 불리한 증거로 활용될 위험</b> 이 매우 높았음.	형사/조세 사안이 아닌 경우, 내부 조사 보고서의 <b>보안 강화</b> . 이를 통해 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내부 문제를 파악하고 시정하는 문화 촉진.

### 법률 자문 보호 수준의 변화

개혁 이전, 프랑스 기업의 내부 법률 자문은 어떠한 법적 보호도 받지 못했다. 이는 경쟁 당국이나 반부패청 (AFA)과 같은 규제 기관이 급습 조사를 벌일 때, 사내변호사와 경영진 간에 오간 모든 이메일, 메모, 보고서가 압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했다. 이러한 문서들은 종종 기업의 잠재적 약점이나 리스크에 대한 솔직한 분석을 담고 있어, 규제 당국에게는 기업의 위법 행위를 입증하는 '로드맵'과도 같았다. 개혁 이후, 상황은 질적으로 변화했다. 물론 형사 및 조세 절차라는 중대한 예외가 존재하지만, 적어도 경쟁법 조사와 같은 행정 절차에서는 법적 요건을 갖춘 법률 자문 문서의 압수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다.<sup>24</sup> 이는 기업에게 중요한 방어 수단을 제공한다.

### 법률 리스크 관리 방식의 전환

과거의 법적 무방비 상태는 기업의 리스크 관리 방식에 왜곡을 가져왔다. 민감한 법률 리스크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경우, 기업들은 내부 논의를 최소화하고 문서화를 기피했다. 대신 외부 변호사의 절대적인 '직업상 비밀유지 의무'의 보호를 받기 위해, 비송무적인 사안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외부 로펌에 자문을 의뢰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기업 내부의 리스크 관리 역량 축적을 저해하는 요인이었다. 새로운 제도는 이러한 '우회 전략'의 필요성을 줄여준다. 이제 기업들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보다 자유롭게 토론하고,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문서화하여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법무팀과 현업 부서 간의 솔직한 소통을 촉진하여, 리스크를 조기에 발견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sup>1</sup>

### 사내변호사의 역할 및 위상 강화

비밀보호권의 부재는 사내변호사의 역할을 제한하는 보이지 않는 족쇄였다. 경영진이나 현업 부서는 자신들의 솔직한 고민이나 잠재적 리스크가 담긴 논의가 기록으로 남아 훗날 기업에 불리한 증거가 될 것을 우려하여, 사내변호사를 전략 수립의 초기 단계에 참여시키기를 꺼려했다. 그 결과 사내변호사는 종종 이미 결정된 사업 계획의 법적 유효성을 사후적으로 검토하는 '유효성 검토자'의 역할에 머물렀다. 그러나 이제 비밀이 보장되는 '신뢰의 공간'이 마련됨에 따라, 사내변호사는 사업 전략 구상 단계부터 참여하여 잠재적 법률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게 되었다.<sup>11</sup> 이는 예방적 법무(preventive law)의 강화를 의미하며, 기업의 의사결정 품질을 한 단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 법률 비용 구조 및 국제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과거에는 소송과 직접 관련 없는 사안이라도 그 민감성 때문에 외부 로펌에 의존해야 했고, 이는 상당한 법률 비용 부담으로 이어졌다. 개혁 이후 기업들은 보다 많은 법률 자문을 내부적으로 소화함으로써 외부 자문 비용을 잠재적으로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새로운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윤리 교육 이수나 내부 문서 관리 시

시스템 구축에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비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국제적 관점에서 볼 때, 이번 개혁은 프랑스의 가장 큰 약점 중 하나를 보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경쟁국과의 법적 비대칭성을 일부 해소함으로써 1, 프랑스가 다국적 기업의 유럽 본부나 주요 사업 거점으로서의 매력도를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sup>11</sup>

### 내부 조사의 활성화와 준법 문화 정착

기업 내에서 발생하는 부패, 괴롭힘, 차별 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부 조사는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의 핵심이다. 그러나 개혁 이전에는 사내변호사가 주도한 내부 조사 보고서가 압수되어 기업에 불리하게 사용될 위험이 매우 컸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적극적인 내부 조사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새로운 제도는 형사나 조세 문제가 결부되지 않은 사안에 대한 내부 조사 보고서의 보안을 강화한다. 이는 기업이 내부적으로 문제를 발견하고 자발적으로 시정 조치를 취하는 문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유인이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는 처벌 중심의 사후적 대응에서 예방 중심의 사전적 관리로 기업의 준법 경영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제4부: 전략적 평가 및 국제 비교

프랑스의 사내변호사 비밀보호권 도입은 단순한 법률 개정을 넘어, 프랑스의 경제 및 법률 환경에 대한 전략적 함의를 지닌다. 이 제도의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협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주요 경쟁국의 제도와 비교함으로써 기업은 보다 정교한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 4.1. SWOT 분석: 새로운 제도의 명과 암

#### 강점 (Strengths)

- **국제 경쟁력 강화:** 가장 큰 강점은 Anglo-American 기업들과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일부 평평하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국제적인 조사나 소송에서 프랑스 기업들이 최소한의 방어 수단을 갖추게 됨으로써, 과거의 일방적인 불리함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
- **예방적 법무 강화:** 사내변호사가 잠재적 법률 위반 가능성을 조기에 파악하고 경영진에게 솔직하게 조언할 수 있는 '신뢰의 공간(zone de confiance)'이 창출되었다. 이는 문제가 발생한 후 대응하는 사후적 법무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사전적 법무로의 전환을 촉진한다.
- **사내변호사의 전략적 위상 제고:** 제도는 사내변호사를 단순한 법률 검토자에서 기업의 핵심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비즈니스 전략 파트너로 격상시키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기업의 리스크 관리 역량을 내재화하고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 약점 (Weaknesses)

- **불완전한 보호:** 형사 및 조세 분야의 전면적인 적용 배제는 이 제도의 치명적인 약점이다. 기업 리스크의 상당 부분이 형사 또는 조세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반쪽짜리 특권'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 **복잡한 이행 요건:** 비밀보호권을 인정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문서 표기, 윤리 교육 이수, 수신인 제한 등 엄격하고 복잡한 절차적 요건들은 기업에 상당한 운영상의 부담을 안겨준다. 하나의 실수만으로도 보호가 무력화될 수 있다.
- **변호사와의 격차:** 사내변호사의 '비밀보호권(confidentialité)'은 외부 변호사의 절대적이고 포괄적인 '직업상 비밀유지 의무(secret professionnel)'와는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이 격차는 기업이 여전히 최고 수준의 보호가 필요할 때 외부 변호사에게 의존해야 함을 의미한다.

#### 기회 (Opportunities)

- **프랑스식 컴플라이언스 모델 발전:** 이 제도는 기업들이 강력한 내부 통제 및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유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는 프랑스 기업들의 준법 경영 문화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 **유럽 본사 유치 매력도 증가:**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증대됨에 따라, 프랑스는 다국적 기업들의 유럽 본사 또는 주요 거점으로서의 투자 매력도를 높일 수 있다.<sup>11</sup>
- **법률 주권 강화:** 미국 법무부의 역외관할권 행사와 같은 외부의 법적 압력에 대응하여 프랑스 기업의 방어권을 강화하고, 프랑스의 법률 주권을 지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sup>1</sup>

위협 (Threats)

- **우회적 법 집행:** 규제 당국이 비밀보호권을 무력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행정 조사를 형사 절차나 조세 절차로 전환하거나 병행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는 제도의 실효성을 잠식하는 가장 큰 위협이다.
- **해석을 둘러싼 소송 리스크:** '법률 자문'과 '사업 자문'의 경계는 무엇인지, 예외 조항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 등을 놓고 향후 법정에서 치열한 해석 다툼이 벌어질 수 있다. 이는 기업에 새로운 법적 불확실성을 안겨줄 수 있다.
- **제도 오남용에 따른 반작용:** 만약 기업들이 이 제도를 불법 행위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이것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할 경우, 여론이 악화되어 제도를 폐지하거나 더 엄격한 규제를 도입하자는 입법적 후퇴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4.2. 국제 비교 법제 분석: 프랑스는 어디에 있는가?

프랑스의 새로운 제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주요 경쟁국인 영국, 미국, 독일의 유사 제도와 비교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는 다국적 기업이 국가별로 상이한 법률 환경에 맞춰 내부 법무 전략을 조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점을 제공한다.

Table 2: Comparison of In-House Counsel Privilege Regimes

항목 (Item)	프랑스 (France)	영국 (United Kingdom)	미국 (United States)	독일 (Germany)
제도명 (Name)	Confidentialité des consultations des juristes d'entreprise	Legal Professional Privilege (LPP)	Attorney-Client Privilege (ACP)	Syndikusanwalt (In-house lawyer with special admission)
법적 근거 (Legal Basis)	성문법 (Loi n° 71-1130, Art. 58-1)	판례법 (Common Law)	판례법 및 성문법	연방변호사법 (BRAO)
보호 주체 (Holder of Privilege)	기업 (문서에 대한 권리)	클라이언트 (Client)	클라이언트 (Client)	클라이언트 (Client)
보호 대상 변호사 (Covered Lawyer)	법학 석사 + 윤리 교육 이수한 사내변호사 23	자격 있는 변호사 (In-house lawyer 포함) 37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In-house lawyer 포함) 39	특별 인가 (Zulassung)를 받은 'Syndikusanwalt' 41



항목 (Item)	프랑스 (France)	영국 (United Kingdom)	미국 (United States)	독일 (Germany)
보호 범위 (Scope of Protection)	'법률 자문' 문서에 한정. '사업 자문'은 제외. <sup>23</sup>	'법률 자문(Legal Advice)' 및 '소송 관련(Litigation)' 통신. 사업 자문은 제외. <sup>43</sup>	'법률 자문'을 위한 통신. 사업 자문은 제외. <sup>45</sup>	외부 변호사와의 통신과 유사하게 보호. 단, EU 경쟁법 조사 등 예외 존재. <sup>34</sup>
핵심 예외 (Key Exceptions)	형사 및 조세 절차 (Penal and Fiscal proceedings) 22	범죄-사기 예외 (Crime-fraud exception) 49	범죄-사기 예외 (Crime-fraud exception) 50	형사 조사 시 압수 가능. EU 경쟁 당국 조사 시 보호되지 않음. <sup>35</sup>
'Client'의 정의 (Definition of 'Client')	기업의 대표, 이사회 등 지정된 수신인 31	지시/자문 권한이 있는 특정 임직원 그룹 ('Narrow' definition) 37	관할권에 따라 'Control Group' 테스트 또는 'Subject Matter' 테스트 적용 39	고용주인 기업
EU 경쟁법 조사 (EU Competition Investigation)	보호 주장 가능하나, EU법 우선 원칙에 따라 논쟁의 여지 있음.	EU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음 (ECJ 판례). <sup>37</sup>	보호되지 않음 (ECJ 판례)	보호되지 않음 (ECJ 판례 - Akzo Nobel) 34

비교 분석 결과, 프랑스의 제도는 몇 가지 뚜렷한 특징을 보인다. 첫째, 영국이나 미국처럼 판례법을 통해 발전한 것이 아니라 성문법으로 명확히 규정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보호의 범위가 '소송 관련 통신'을 포함하는 영국의 LPP나 관할권에 따라 폭넓게 인정될 수 있는 미국의 ACP에 비해 상대적으로 협소하며, 특히 형사/조세 분야의 포괄적인 예외는 다른 국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강력한 제한이다. 독일의 경우, 'Syndikusanwalt'라는 특별 인가 제도를 통해 자격을 갖춘 사내변호사에게 외부 변호사와 유사한 보호를 부여하지만, 이 역시 형사 조사나 EU 경쟁법 조사에서는 한계를 보인다.<sup>47</sup> 결론적으로 프랑스의 제도는 국제 표준에 근접하려는 시도이지만, 보호의 강도와 범위 면에서는 여전히 영국이나 미국에 미치지 못하며, 독일과 유사하거나 일부 측면에서는 더 제한적인 모델로 평가할 수 있다.

### 4.3. 결론 및 전략적 제언

#### 종합 평가

프랑스의 사내변호사 비밀보호권 도입은 수십 년간 지속된 '법적 진공' 상태를 해소하고 국제 표준에 다가가기 위한 \*\*\*중요하지만 불완전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이 개혁은 프랑스 기업의 방어권을 일부 신장시키고, 사내 변호사의 전략적 역할을 강화하며, 예방적 법무 문화를 촉진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그러나 형사 및 조세 분야라는 광범위한 예외 조항은 제도의 실효성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하며, 기업들에게 새로운 차원의 전략적 고민을 안겨준다. 따라서 기업들은 이 제도를 만능 방패로 여겨서는 안 되며, 그 한계를 명확히 인지하고 정교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 기업을 위한 실무 가이드라인

새로운 법적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프랑스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실무적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1. **내부 프로토콜의 수립 및 전파:** 비밀보호권 적용 대상이 되는 법률 자문 문서의 생성, 검토, 승인, 보관, 접근 권한 부여, 파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명확한 내부 지침(프로토콜)을 수립해야 한다. 이 지침은 법무팀뿐만 아니라 관련 임직원 모두에게 전파되고 숙지되어야 한다.
2. **엄격한 문서 관리 및 형식 준수:** 모든 법률 자문 문서에는 "**Confidentiel – Consultation juriste d'entreprise**" 문구를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또한, 해당 문서의 수신인을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대표, 이사회 등)로 엄격히 제한하고, 일반 업무 문서와 분리된 별도의 보안 폴더나 시스템에서 관리하여 접근 기록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전사적인 교육 및 훈련 실시:** 사내변호사는 물론, 이들의 자문을 받는 경영진과 현업 부서 리더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제도의 구체적인 요건, 보호 범위, 그리고 명백한 한계(특히 형사/조세 예외)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변호사와 이야기하면 모든 것이 비밀'이라는 오해를 불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4. **'자문 유형'의 명확한 구분:** 소통 과정에서 '법률 자문'과 순수한 '사업 자문'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특히 이메일과 같이 여러 내용이 혼재되기 쉬운 매체에서는, 법률 자문을 요청하거나 제공할 때 제목이나 본문에 그 목적을 명시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해석 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5. **외부 변호사와의 전략적 협력:** 사안의 중대성이 높거나, 행정적 리스크와 형사/조세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초기 단계부터 외부 변호사를 참여시키는 것이 현명하다. 이는 사내변호사의 제한적인 '비밀보호권'과 외부 변호사의 절대적인 '직업상 비밀유지 의무'라는 이중의 방어막을 구축하여, 기업의 방어 능력을 극대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다.

## 향후 전망 및 주시 사항 (KPIs to Monitor)

이 제도는 이제 막 첫걸음을 뗀 상태이므로, 그 발전 과정을 지속적으로 주시해야 한다.

- **법원 판례 동향:** '법률 자문'과 '사업 자문'의 경계를 판단하는 기준, 예외 조항의 해석 범위 등과 관련하여 향후 축적될 프랑스 법원의 판례는 제도의 실질적인 내용을 구체화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 **후속 시행령(Décret)의 구체화:** 사내변호사가 이수해야 할 윤리 교육의 구체적인 커리큘럼, 이수 시간, 인증 기관 등을 규정할 후속 시행령의 내용을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
- **규제 당국의 대응 전략:** 검찰, 경쟁 당국, 국세청 등이 새로운 제도를 우회하기 위해 형사 또는 조세 절차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용하는지, 그들의 법 집행 패턴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비해야 한다.
- **추가 입법 가능성:** 제도의 명백한 한계점, 특히 형사/조세 분야의 예외 조항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계속될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추가적인 입법 논의가 수년 내에 다시 점화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 참고 자료

1. La confidentialité des avis juridiques - AFJE, 7월 18, 2025에 액세스, <https://afje.org/info/la-confidentialite-des-avis-juridiques>
2. Rapport, n° 2469 - 16e législature - Assemblée nationale, 7월 18, 2025에 액세스, <https://www.assemblee-nationale.fr/dyn/old/16/rapports/r2469.asp>
3. Rapport Darrois sur les professions du droit - Ministère de la justice, 7월 18, 2025에 액세스, <https://www.justice.gouv.fr/documentation/ressources/rapport-darrois-professions-du-droit>
4. Vers une grande profession du droit | vie-publique.fr, 7월 18, 2025에 액세스, <https://www.vie-publique.fr/rapport/30395-vers-une-grande-profession-du-droit>
5. Rapport sur les professions du droit - Ministère de la justice, 7월 18, 2025에 액세스, [https://www.justice.gouv.fr/sites/default/files/migrations/portail/art\\_pix/rap\\_com\\_darrois\\_20090408.pdf](https://www.justice.gouv.fr/sites/default/files/migrations/portail/art_pix/rap_com_darrois_20090408.pdf)
6. I10-1311.pdf - Sénat, 7월 18, 2025에 액세스, <https://www.senat.fr/rap/I10-131/I10-1311.pdf>

7. N° 2621 ASSEMBLÉE NATIONALE, 7월 18, 2025에 액세스, <https://www.assemblee-nationale.fr/13/pdf/rapports/r2621.pdf>
8. Confidentialité - AFJE, 7월 18, 2025에 액세스, <https://www.afje.org/actualite/confidentialite-2--326>
9. Confidentialité des avis des juristes d'entreprise : une avancée majeure historique, 7월 18, 2025에 액세스, <https://www.cercle-montesquieu.fr/news/confidentialite-des-avis-des-juristes-d-entreprise-une-premiere-victoire-862>
10. Confidentialité - AFJE, 7월 18, 2025에 액세스, <https://www.afje.org/actualite/confidentialite-1--324>
11. AVIS - du Haut Comité Juridique de la Place financière de Paris (HCJP) L'avocat en entreprise - Banque de France, 7월 18, 2025에 액세스, [https://www.banque-france.fr/system/files/2023-10/avis\\_10\\_f.pdf](https://www.banque-france.fr/system/files/2023-10/avis_10_f.pdf)
12. La confidentialité des avis des juristes d'entreprise est plus que jamais primordiale selon l'AFJE - LE MONDE DU DROIT, 7월 18, 2025에 액세스, <https://www.lemondedudroit.fr/juriste/82199-confidentialite-avis-juristes-entreprise-est-plus-que-jamais-primordiale-afje.html>
13. Le CNB s'oppose à la reconnaissance de la confidentialité des avis ..., 7월 18, 2025에 액세스, <https://www.lemondedudroit.fr/institutions/88074-cnb-soppose-reconnaissance-confidentialite-avis-juristes-entreprise-legal-privilege.html>
14. Legal privilege à la française : 100 fois sur le métier, remettez votre ouvrage ?, 7월 18, 2025에 액세스, <https://www.village-justice.com/articles/legal-privilege-francaise-reve-passe-devenir-realite,46433.html>
15. Communiqué : Sérieusement - ACE | Avocats, ensemble., 7월 18, 2025에 액세스, <https://avocats-ace.fr/2023/07/04/serieusement-de-la-resolution-du-conseil-national-des-barreaux-votee-le-3-juillet-2023-contre-la-confidentialite-des-avis-des-juristes-dentreprise/>
16. LOI n° 2023-1059 du 20 novembre 2023 d'orientation et de programmation du ministère de la justice 2023-2027 (1) - Légifrance, 7월 18, 2025에 액세스, <https://www.legifrance.gouv.fr/jorf/id/JORFTEXT000048430512>
17. Coup de tonnerre : le Conseil constitutionnel censure les dispositions relatives à la confidentialité des avis des juristes en entreprise - Livv.eu, 7월 18, 2025에 액세스, <https://livv.eu/articles/conseil-constitutionnel-censure-confidentialite-juristes>
18. Secret des consultations juridiques : un pas en avant, deux pas en arrière, 7월 18, 2025에 액세스, <https://www.altajuris.com/secret-des-consultations-juridiques-un-pas-en-avant-deux-pas-en-arriere/>
19. LOI n° 2023-1059 du 20 novembre 2023 d'orientation et de programmation du ministère de la justice 2023-2027 (1) - Légifrance, 7월 18, 2025에 액세스, <https://www.legifrance.gouv.fr/loda/id/LEGIARTI000048431895>
20. Retour à la case départ pour le legal privilege à la française ? - Hogan Lovells, 7월 18, 2025에 액세스, <https://www.hoganlovells.com/fr/publications/retour-a-la-case-depart-pour-le-legal-privilege-a-la-francaise>
21. Confidentialité des consultations des juristes d'entreprise - Dossiers législatifs - 16e législature - Assemblée nationale, 7월 18, 2025에 액세스, [https://www.assemblee-nationale.fr/dyn/16/dossiers/confidentialite\\_consultations\\_juristes\\_entreprise](https://www.assemblee-nationale.fr/dyn/16/dossiers/confidentialite_consultations_juristes_entreprise)
22. Garantir la confidentialité des consultations juridiques : adoption au Sénat, 7월 18, 2025에 액세스, <https://www.lemondedudroit.fr/professions/238-avocat/91455-garantir-la-confidentialite-des-consultations-juridiques-adoption-au-senat.html>
23. Garantir la confidentialité des consultations juridiques - Sénat, 7월 18, 2025에 액세스, <https://www.senat.fr/leg/pp123-126.html>
24. Confidentialité consultations juriste entreprise Proposition de loi 2024 | vie-publique.fr, 7월 18, 2025에 액세스, <https://www.vie-publique.fr/loi/293979-confidentialite-consultations-juriste-entreprise-proposition-de-loi-2024>

25. Proposition de loi visant à garantir la confidentialité des consultations juridiques des juristes d'entreprise - Sénat, 7월 18, 2025에 액세스, [https://www.senat.fr/rap/I23-320/I23-320\\_mono.html](https://www.senat.fr/rap/I23-320/I23-320_mono.html)
26. Legal privilege à la française 2023-2024 : 2e tentative de réforme (PPL Vogel – PPL Terlier)., 7월 18, 2025에 액세스, <https://www.village-justice.com/articles/legal-privilege-francaise-2023-2024-tentative-reforme-ppl-vogel-ppl-terlier,48862.html>
27. "Legal privilege" : l'Assemblée nationale décide à son tour de protéger, à certaines conditions, la confidentialité des consultations juridiques des juristes d'entreprises, 7월 18, 2025에 액세스, <https://www.gossement-avocats.com/blog/legal-privilege-l-assemblee-nationale-veut-a-son-tour-protoger-la-confidentialite-des-consultations-juridiques-des-juristes-d-entreprises/>
28. Reconnaissance de la confidentialité des consultations des juristes d'entreprise : le texte enfin voté ! - Éditions Législatives, 7월 18, 2025에 액세스, <https://www.editions-legislatives.fr/actualite/reconnaissance-de-la-confidentialite-des-consultations-des-juristes-dentreprise-le-texte-enfin-vote/>
29. Article 58 - Loi n° 71-1130 du 31 décembre 1971 portant réforme de certaines professions judiciaires et juridiques - Légifrance, 7월 18, 2025에 액세스, [https://www.legifrance.gouv.fr/loda/article\\_lc/LEGIARTI000006903388](https://www.legifrance.gouv.fr/loda/article_lc/LEGIARTI000006903388)
30. Loi n° 71-1130 du 31 décembre 1971 portant réforme de certaines professions judiciaires et juridiques - Légifrance, 7월 18, 2025에 액세스, <https://www.legifrance.gouv.fr/loda/id/JORFTEXT000000508793>
31. Confidentialité des avis des juristes d'entreprise : l'Assemblée nationale adopte l'amendement - LE MONDE DU DROIT, 7월 18, 2025에 액세스, <https://www.lemondedudroit.fr/institutions/88212-confidentialite-avis-des-juristes-entreprise-assemblee-nationale-adopte-amendement.html>
32. "Legal privilege" : le Sénat veut protéger la confidentialité des consultations juridiques des juristes d'entreprise - Cabinet Gossement AVOCATS, 7월 18, 2025에 액세스, <https://www.gossement-avocats.com/blog/legal-privilege-le-senat-adopte/>
33. Proposition de loi visant à garantir la confidentialité des consultations juridiques des juristes d'entreprise - Sénat, 7월 18, 2025에 액세스, <https://www.senat.fr/rap/I23-320/I23-3204.html>
34. Germany: Legal Professional Privilege and Implied Undertaking - Norton Rose Fulbright, 7월 18, 2025에 액세스, <https://www.nortonrosefulbright.com/de-de/wissen/publications/7fd309be/germany-legal-professional-privilege>
35. Privilege - European Union - Gibson Dunn, 7월 18, 2025에 액세스, <https://www.gibsondunn.com/wp-content/uploads/documents/publications/Doris-Melrose-Know-how-EU-Privilege-GIR-November-2016.pdf>
36. Le CNB vote en faveur du renforcement du secret professionnel de l'avocat et propose des évolutions législatives | Conseil national des barreaux, 7월 18, 2025에 액세스, <https://cnb.avocat.fr/fr/actualites/le-cnb-vote-en-faveur-du-renforcement-du-secret-professionnel-de-lavocat-et-propose-des-evolutions>
37. Privilege under English law: The rules and definitions - Norton Rose Fulbright, 7월 18, 2025에 액세스, <https://www.nortonrosefulbright.com/en-us/knowledge/publications/6c6dfda0/privilege-under-english-law>
38. Quickguide Privilege under English law - Ashurst, 7월 18, 2025에 액세스, <https://www.ashurst.com/en/insights/quickguide-privilege-under-english-law/>
39. 03 - Scope of privilege | United States | Global Attorney-Client Privilege Guide, 7월 18, 2025에 액세스, <https://resourcehub.bakermckenzie.com/en/resources/global-attorney-client-privilege-guide/north-america/united-states/topics/03---scope-of-privilege>
40. Attorney-Client Privilege in the Corporate Setting, 7월 18, 2025에 액세스, <https://www.acc.com/sites/default/files/program-materials/upload/ACC%20STL%20-%20Lewis%20Rice%20CLE%20Presentation%201-26-2022.pdf>

41. Privileged to be a lawyer? A German perspective on privilege, 7월 18, 2025에 액세스, <https://www.simmons-simmons.com/publications/ck0b3xgdnvdt0b33lg1s0tbw/06-privileged-to-be-a-lawyer-a-german-perspective-on-privilege>
42. Country Report 2015 - Germany: Bundesrechtsanwaltskammer / The German Federal Bar, 7월 18, 2025에 액세스, <https://www.uanet.org/fr/actions/country-report-2015-germany-bundesrechtsanwaltskammer-german-federal-bar>
43. Legal Professional Privilege - Quick Guide - In House Counsel - Herbert Smith Freehills, 7월 18, 2025에 액세스, [https://www.hsfkramer.com/sites/default/files/Legal%20Professional%20Privilege%20-%20Quick%20Guide%20-%20In%20House%20Counsel\\_0.pdf](https://www.hsfkramer.com/sites/default/files/Legal%20Professional%20Privilege%20-%20Quick%20Guide%20-%20In%20House%20Counsel_0.pdf)
44. Legal professional privilege in the UK - Pinsent Masons, 7월 18, 2025에 액세스, <https://www.pinsentmasons.com/out-law/guides/legal-professional-privilege-some-practical-considerations>
45. Don't Lose Your Privilege: Best Practices for the In-House Lawyer, Straightline, 7월 18, 2025에 액세스, <https://www.hunton.com/insights/publications/don-t-lose-your-privilege-best-practices-for-the-in-house-lawyer>
46. Healthy Habits for In-House Attorneys: The Attorney-Client Privilege - Association of Corporate Counsel, 7월 18, 2025에 액세스, <https://www.acc.com/sites/default/files/2021-04/Healthy%20Habits%20for%20In-House%20Attorneys%20The%20Attorney-Client%20Privilege.pdf>
47. 03 - Scope of privilege | Germany | Global Attorney-Client Privilege Guide, 7월 18, 2025에 액세스, <https://resourcehub.bakermckenzie.com/en/resources/global-attorney-client-privilege-guide/europe-middle-east--africa/germany/topics/03---scope-of-privilege>
48. Germany's Legal Privilege: What In-House Counsel Need to Know | Insights | Jones Day, 7월 18, 2025에 액세스, <https://www.jonesday.com/en/insights/2024/11/germanys-legal-privilege-what-inhouse-counsel-need-to-know>
49. SRA | Legal professional privilege when working in-house - Guidance, 7월 18, 2025에 액세스, <https://www.sra.org.uk/solicitors/guidance/professional-privilege-in-house/>
50. Attorney-Client Privilege for In-House Counsel - American Bar Association, 7월 18, 2025에 액세스, [https://www.americanbar.org/groups/intellectual\\_property\\_law/resources/landslide/archive/attorney-client-privilege-in-house-counsel/](https://www.americanbar.org/groups/intellectual_property_law/resources/landslide/archive/attorney-client-privilege-in-house-counsel/)
51. What the Attorney-Client Privilege Really Means - SGR Law, 7월 18, 2025에 액세스, <https://www.sgrlaw.com/ttl-articles/916/>
52. New legal privilege guidance for in-house lawyers in England - Pinsent Masons, 7월 18, 2025에 액세스, <https://www.pinsentmasons.com/out-law/news/new-legal-privilege-guidance-for-in-house-lawyers-in-england>